2026.05.21

[국내주식 마감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악재의 중첩을 뒤집으면 호재의 폭발이 된다

KOSPI 7,816pt(+8.4%), KOSDAQ 1,106pt(+4.7%)

해외 시황 — 유가와 금리 부담 완화시킨 트럼프 발언에 반도체 중심 급등

- 미국 주식시장 상승(S&P500 +1.1%, NASDAQ +1.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5%). 미국 이란 협상 기대에 유가와 금리 동반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가깝다고 언급, WTI 5% 이상 하락하며 현재 100$ 하회. 10년물 국채금리도 변동성 축소, 4.5%대로 복귀. 와중 FOMC 의사록 매파적으로 공개됐으나 앞선 지정학적 갈등 완화가 시장금리에 더 크게 작용. 이런 우호적 환경 조성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전자 파업 문제 해결은 반도체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야기

수급 — 외국인 순매도 지속이나 순매도액 대폭 축소

- KRX 현물 기준 개인 -2.7조원, 외국인 -0.2조원, 기관 +2.9조원 순매수. 외국인 금일 2천 2백억 순매도하며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나 과거 10거래일 평균 순매도액 4.4조원에 비하면 금일의 0.2조원은 대폭 축소. 단 외국인 대형주 차익 실현은 지속. 금융투자 중심 개인 ETF 매수세가 대형주 매수

시황 — 이익 사이클 견조한 가운데 대내외 변수 진정되는 상황

- 금일 KOSPI, KOSDAQ 각각 8.4%, 4.7% 급등. KOSPI 종가 기준 8.000pt 돌파한 적은 없으나 장중 15일(고가 8,047pt) 신고가 경신한 이후 급락. 전일 20일(저가 7,054pt)까지 1,000포인트를 4거래일 만에 하락. 최근 시황에서 지속 언급했듯 유가, 금리, 삼성전자 파업 등의 대내외 변수, 하락의 사유를 후행적 명분 찾기로 판단. 5월 6일 7천피 돌파한 이후 단 5거래일 만 장중 7,999pt 도달.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진 것. RSI(14일) 과매수 구간 진입 및 기술적 부담 존재 구간이었음. 현재는 전일의 급락으로 기술적 과매수 구간 탈피. 단, 현재의 반등은 후행적 명분 찾기가 아닌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 유가-금리 변동성 완화, 엔비디아 호실적 등 선행적 호재의 동시다발적 반영

- 핵심은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 해소. 노사 잠정 합의. 특히 1) 현금 아닌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 2) 지급 주식 일부 락인(1/3만 즉시 매각 가능) 3) 노측의 15% 대비 조정된 10.5%의 성과 반영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
  주가 관점에서 긍정적 해석 가능. 1) 파업 불확실성 해소, 2) 현금 성과급 지급 대비 현금 유출 부담 감소 3) 기존 보유 자사주 활용 시 Capex 여력 보존 효과. 직원 보상이 주가와 연동되고 지급 물량 중 상당 부분에 락인이 걸려 즉시 매물화 되는 오버행 부담도 제한적

- 반도체 포함 대형주 상대적 강세. KOSPI 상승 669개 하락 221개로 대형주 만 상승한 장세도 아니었음. 단, 삼성전자(+8.5%)가 SK하이닉스(+11.2%) 대비 수익률 하회한 점은 고민할 필요. 파업을 안했던 SK하이닉스와 달리 이미 노이즈가 발생해서 신뢰가 깨진 디스카운트일지, 혹은 주말 투표 부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추가 반영일지는 가결 확인 후 판단해도 될 전망

- 지정학적 갈등 완화 기대감과 엔비디아 호실적은 다음 요인. 지정학적 갈등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 다만, 현재의 시장은 외적 변수와 무관하게 흘러왔던 점 상기 필요. 4월 초 5천pt 초반에서 5월 초 8천pt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어떤 순간에도 유가, 금리,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됐을 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적 없음(오늘도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 4.5% 상회). AI 랠리의 기반이 소비, 금리 등 과거 IT Cycle 당시 깊게 연관되었던 매크로 요소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인지할 필요. 오늘 확인한 5월 1~20일 수출은 역대급, 반도체 수출 단가 및 수출 물량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

이벤트 — 국민성장펀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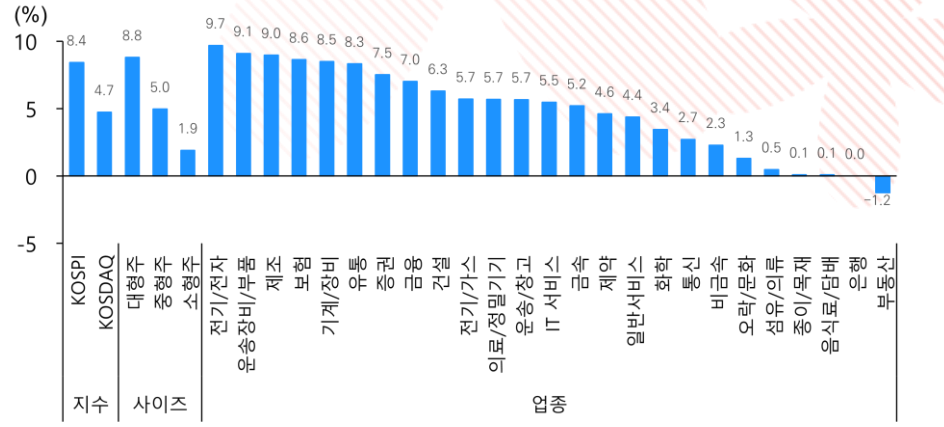
- 1) 미국: 케빈워시 연준 의장 취임(5월 22일) 2) 한국: 국민성장펀드 출시(5월 22일)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29,008	1,389
외국인	-2,212	1,367
개인	-26,757	-2,590
거래대금	427,438	125,994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